

2025년 제1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회의일시	2025. 2. 27.(목) 10:00~11:00	장 소	센터 내 교육실-1
참석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인원 : 총10명 중 7명 참석 • 참석위원 : 배정숙, 서승환, 최경희, 손지혜, 황현숙, 박미희 이지원 주무관(대리참석) • 위원 외 참석자 : 이지은(통영시가족센터 사업1팀 팀장) 박성미(통영시가족센터 사업2팀 팀장) 김정희(통영시가족센터 아이돌봄지원팀 팀장) 		
구 분	회의내용 및 결과		
회의내용	<p>1. 개회선언 ► 배정숙 운영위원장: 제1회 운영위원회 개회선언</p> <p>2. 전차 운영회의 및 2024년 사업실적 보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지은 팀장: 전차 운영위원회의 결과 및 2024년 사업 실적 보고 ► 서승환 센터장: 전차 회의 내용을 상기하기 위해 2024년 4분기 회의록을 금년부터 첨부함. 4분기의 예산과 추경보고 중점으로 보고가 됨. 특히, 작년에는 다목적교류소통공간이 개소하며 공간활용 및 상시 프로그램을 진행함 ► 이지은 팀장: 24년 영역별 사업실적보고, 실적을 달성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 이중언어 직접학습은 아동들의 학원 일정 등 타 일정으로 인해 중도탈락되는 경우가 있었고 따라서 올해는 작년 결과를 반영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계획함 ► 서승환 센터장: 덧붙여 말씀드리면 이중언어 직접학습의 중도탈락된 아동은 잊은 결석으로 인해 진도를 따라가는 데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음. 센터가 이전하기 전 무전동에 있을 때는 아동들의 접근성이 좋았으나 죽림에 센터가 이전하며 아이들의 접근성이 있어 어려움이 있음. <p>또한 작년 결혼이민자 동아리활동지원사업은 결혼이민자의 자조집단으로 운영이 되다보니 결혼이민자 13명 중 4명이 일자리 참여, 3명은 임신 출산으로 활동을 중단하게 되어 실적이 계획 대비 달성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정숙 운영위원장: 통번역 사업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질의함 ► 서승환 센터장: 통번역은 외부 요청으로 인한 통역 지원이나 서류의 번역 업무와 공공기관의 통역, 번역 업무를 지원하고 통·번역을 위해 함께 동행하기도 함. 최근 출입국관리소에서 통번역자의 신분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편으로 이 부분은 통번역자의 개인정보여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음. 		

3. 2024년 결산보고

- ▶ 최경희 팀장: 2024년 결산보고
- ▶ 서승환 센터장: 세입이 감소된 것은 보조금 감액으로 줄어듦. 세출은 직원 입퇴사로 반납분이 발생함. 이월금은 특별히 아이돌봄지원사업 같은 경우 연속 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을 다음해 지출되어 전국적으로 이월금이 발생함.

4. 2025년 1분기 사업 계획보고

- ▶ 이지은 팀장: 2025년 1분기 사업 계획보고
- ▶ 배정숙 운영위원장: 3월 다양한 사업 진행으로 직원들의 노고가 많을 것 같음
- ▶ 서승환 센터장: 자료에는 기입되지 않았지만 올해 신규사업으로 찾아가는 부모양육코칭을 진행함. 자녀를 키우는 노하우와 교육이 필요한 경우 양육코칭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가는 사업을 2분기부터 준비하여 진행 예정에 있음. 또한 최근 대전의 아동학대 사건 이후로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아이돌보미 선생님을 대상으로 긴급 아동학대예방 교육을 통영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진행함. 기존에 진행 하던 교육과 달리 아이를 돌볼 수 있는 환경에서 일어났던 실제 사례를 들어 학대예방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아동학대와 관련된 경각심에 대해 준비가 잘 되었다고 생각함
- ▶ 배정숙 운영위원장: 아이돌봄지원사업에서 이에 대한 부분을 잘 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음
- ▶ 박미희 위원: 이중언어 직접학습의 경우 무전동에서 진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함
- ▶ 서승환 센터장: 이중언어 직접학습의 경우 교육장의 변화보다는 공간의 제약 없는 온라인 줌으로 진행하고 있어 죽림으로 직접오기 힘든 아동들은 비대면 학습을 진행할 수 있음
- ▶ 박미희 위원: 지역센터 아동들이 주로 미수동에 있다보니 기존에 무전동까지는 무난하게 왔는데 죽림으로 이전 후 거리적으로 멀어 센터를 방문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 질의한 부분이었음

5. 추경예산보고

- ▶ 최경희 팀장: 추경예산보고
- ▶ 서승환 센터장: 24년 인건비 기준과 25년 인건비 기준이 지침의 변경에 따라 달라져 예산을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추경함. 또한 직원들이 야외 및 야간 프로그램을 진행 시 단체 근무복을 통해 직원 여부 파악과 복지증진을 위해 피복비를 편성함.
- ▶ 배정숙 운영위원장: 중간에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추경을 통해 알 수 있음.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면 좋을 듯함
- ▶ 서승환 센터장: 간혹 작년에 예산 반납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어 예산 변경시에는 계속적인 추경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음

6. 기타보고 및 논의사항

- ▶ 서승환센터장: 올해 가족사업 1팀에 선임팀원을 두어 팀내 슈퍼비전을 강화하기 위해 송지아 사회복지사의 승급이 있음.
더불어 운영규정 일부 개정사항으로 소재지 변경, 사업 총칙에 있어 아이돌봄 지원사업법 추가, 5년 이상 근무 시 선임사회복지사로 자동 진급 부분에 있어 당연 승급 부분을 삭제, 복무규정과 관련하여 배우자 출산 휴가 법령이 변경되며 10일의 휴가에서 20일로 변경, 휴가 청구일은 90일에서 120일로 변경됨. 또한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직원 의무교육시간 30시간에서 20시간으로 변경

된 사항을 개정함.

세 번째로 저출산 시대로 지역이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센터가 노력해야한다고 생각함. 이에 따라 작년 1년 동안 시범사업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일요일까지 운영하였고 날씨에 공동육아나눔터 이용률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음. 무더운 여름 또는 추운 겨울 지역 내 영유아 자녀를 둔 부모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을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25년 실적도 증가할 것이라 예상함

올해 통영시 조례에 공동육아나눔터 휴관일 일요일에서 상시운영으로 변경 예정임. 따라서 이용자들의 편의와 함께 직원들의 복지에 있어서도 일요일 당직시 주휴일을 보장을 위해 평일 휴일근무와 당직비 3만원 편성을 통해 정당한 대우를 제공하고자 함

- ▶ 배정숙 운영위원장: 일요일 공동육아나눔터의 이용자가 하루 평균 15명~20명 정도인데 당직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의함
- ▶ 서승환 센터장: 하루 이용자는 가정 수로 치면 15가정~20가정이 이용함. 운영 부분에 있어서는 이용자들은 보호자가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당직자는 1층 안내데스크에서 캡스 출동을 통해 안전사항을 관리할 수 있어 당직자 1명이 근무함
- ▶ 배정숙 운영위원장: 혹시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 ▶ 박미희 운영위원: 주말 모두 운영하는 만큼 직원들의 노고가 많을 것 같은데 직원들의 처우도 함께 생각해주시는 센터장님의 모습이 좋은 것 같음
- ▶ 서승환 센터장: 센터도 시에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는 입장에서 예산 편성을 해주어서 함께 감사드림
- ▶ 배정숙 운영위원장: 이상으로 1분기 운영위원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음

제1회 운영위원회의 진행사진



위의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일 2025년 2월 27일

작성자 송지아 (송지아)